

한국어 (韓國語・朝鮮語)

음주 운전의 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의 회고록



회고록 기반 동영상
(치바현 경찰 본부 공식 YouTube 채널)



본 채널은 치바현 경찰 본부 총무과 홍보
및 시민 협력 부서에서 Google LLC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주소).

치바현 경찰

무책임한 운전이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
아직도 음주 운전을 하시나요?

<심각하게 취한 상태의 운전> (주 1)

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엔 이하의 벌금
벌점: 35 →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주 2, 3)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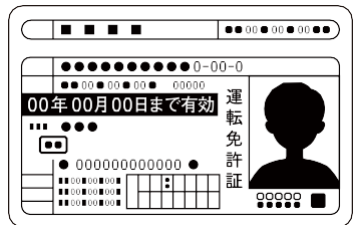
- 호흡 알코올 농도(BAC): 0.15mg/L ~ 0.25mg/L
벌점: 13
면허 정지: 90일(주 2)

- 호흡 알코올 농도: 0.25mg/L 이상
벌점: 25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주 2, 3)
-

주 1: “심각하게 취한 상태의 운전”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 2: 이전 위반 사항이나 누산점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 3: “결격기간”이란 면허 취소 후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의 죄

회사원(20대)

저는 음주운전 및 과속을 저지르고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흔히 뺑소니라고 말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 사고로 저는 누군가의 생명을 뺏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휴일을 앞두고 전날 받은 급여로 두둑해진 계좌에 주초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이 술자리에 초대했을 때 전혀 고민도 없이 바로 나갔습니다.

이전에도 종종 취한 상태로 집까지 운전하곤 했기 때문에 그날도 “술자리가 끝나면 내가 운전해서 친구들을 데려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저는 두 친구에게 태워주겠다며 악마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제안이 불러일으킨 불행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차에 올라타자 저는 시동을 걸고 팍송을 틀었습니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광!”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앞유리가 깨졌고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이 멈추라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사고 현장에서 약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친구들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패닉에 빠져 가드레일 옆에 주저앉은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 제 주변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에워쌌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사고를 내신 당사자이십니까?”라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보행 측정 및 약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그제서야 저 자신이 정말 사고를 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가량의 시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건딜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망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 부모님은 “유가족에게 사과드리기 위해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12명 이상의 고객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오셔서 저를 대신해 사과하셨습니다. 저희 집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부모님은 끊임없이 울리는 초인종과 전화벨 소리에 지치셨습니다.

제가 일으킨 사고 때문에 제 동생의 약혼마저 취소되었고, 저는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은 제가 목숨을 앗아간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유가족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일 항소권을 포기하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희생되신 분의 묘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소하게 되면 저의 속죄하려는 노력을 유가족이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센터에 힘을 보태고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슬픔을 겪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며 이 비극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

인테리어 종사사(40대)

처음 술을 마시게 될 때만 하더라도 언젠가 음주 운전을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가기 전에 간단히 한잔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운전해서 출근을 해야 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만, “조금이라면 괜찮겠지”라거나 “필요하면 콜택시를 부르면 되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술을 약간만 마셨고 직접 운전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잘못된 자신감이 저를 더 큰 실수로 이끌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만 마시면 괜찮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음주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운전은 너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40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20대 시절보다 술에 대한 내성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원할 때 떠나고, 원할 때 집에 돌아오고, 졸릴 땐 차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는 편리함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유로움과 편안함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 8시쯤부터 이른 아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차에서 자거나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전혀 졸리지도 않고 취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운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달렸을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강한 충격에 잠에서 깬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집까지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연행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고가 아닌 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자매 없이 시력이 좋지 않아 혼자서는 외출하실 수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저는 구금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저를 면회하러 왔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친척과 이웃들이 집안일을 도와주어 어머니가 겨우 버티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나 판결 당일까지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법원은 제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척으로부터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편지에는 “집에 돌아오기를 어머니가 항상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 보이셨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갑자기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 역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고통을 야기한 것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직접 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속죄는 감옥을 떠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를 바로잡는 데 전념할 생각입니다.

무책임한 태도의 대가

회사원(30대)

제 삶은 큰 고비나 문제없이 항상 평탄하게 차근차근 행복을 쌓아가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원이었고 직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기록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빠져 결혼도 했고 축복과도 같은 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퇴근 후 친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술 한 잔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종종 테킬라 한 잔으로 시작해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여러 술을 즐기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날도 많았고, 택시를 잡거나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은 다음 날 기다리고 있는 업무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집에 가는 방법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음주 운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만, 저는 점점 무섭게도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술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 “그런 늦은 시간에는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니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마시러 나가려고 할 때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전화로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저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한 잔만 마시고 집에 가겠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테킬라 한 잔으로 시작된 술자리는 어느새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길로 빠지면 음주 측정을 하는 곳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1차선 도로를 달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방심한 상태로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니 자전거 한 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차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난 곳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 차를 멈추고 다시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다친 정도였으면” 혹은 “사람이 아니었으면”하고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누군가 꼼짝도 않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있던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움직이는 와중에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저를 연행했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고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텅 비어있었고 저를 기다리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전화했지만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냈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후회와 위우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문을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답장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유가족을 대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유가족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고 당일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 깊이 후회됩니다.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유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제 가족, 경력 등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참을 수 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로 저는 가족을 보지도, 가족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회가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저는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삶을 잔인하게 앗아갔고, 유가족에게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저지른 무책임한 태도의 대가입니다.

음주 운전의 영향

트럭 운전자(50대)

저는 대형 트럭을 몰다가 한 여성을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저는 음주 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고 전날 저녁 6시부터 맥주 세 잔과 칵테일 한 캔을 마시고 저녁 8시가 되기 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 아침과 점심을 준비하여 집을 나서 트럭 차고지로 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람을 치었습니다.

사고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우회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오른쪽으로 하얀 무언가가 필력은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저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후륜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은지 반복해서 물어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 저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고 구금되었습니다. 그 후 약 두 달 동안 집에 머물렀으나,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날 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감사를 받았고, 사장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가족과 연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트럭 운전자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과 술이 제 인생에 끼친 엄청난 영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치하라 교도소에서 저는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음주 습관과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과 더불어 “피해자의 관점 통합”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생각했는지 직시하고 피해자 유가족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니 제가 저지른 것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생명을 앗아간 살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치하라 교도소에서 배우며 반성한 것과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얻은 영감을 통해 저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다시 통합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저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유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깊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유가족이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최선의 보상 방법을 고민하고 속죄하기 위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생긴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제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

사회 복지사(30대)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제가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며 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술이 깼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제멋대로 음주 운전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주 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음주 운전을 하다 보니 체내에 알코올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음주 운전이 위험하다는 생각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여름날 저녁 식사 도중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짜증이 난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하면 다툼이 더 길어질 것 같아 차에서 잠시 누워 쉬기로 했습니다. 그 후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교차로 신호등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가족들과 또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의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술을 더 샀고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이기적인 변명 따위를 대며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주위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음주 운전을 계속하더라도 교통사고와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산 술을 마신 후 저는 심하게 취했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차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우회전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제 차가 받은 충격으로 트럭은 연석을 넘어 근처 신호등 기둥을 넘어뜨린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정면 충돌로 부서진 트럭 앞부분과 좌석 사이에 끼여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하여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할 수 있었지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로 사과문을 보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제 무모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일로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가족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모진 말을 건넬까만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와 제 가족에게도 폐를 끼쳤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기 전날까지 계속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절대 하지도, 용인하지도, 용납하지도 마세요.

아래 설명에 따라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음주 운전에 가담한 운전자 정보
- 2 음주 운전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업소 정보
- 3 기타 관련 정보

(상기 1, 2번과는 별개로 음주 운전 단속과 관련된 귀중한 정보)

정보 제출: _____



치바현 경찰 웹사이트
[음주 운전 단속 대책 우편함]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11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2023년 6월 28일 치바현의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1. 사업자: 직원이 출퇴근 중에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통보됩니다.
2. 음식점: 음주 운전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바현 웹사이트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

- 현재 “음주 운전 근절 선언 사업장” 및 “음주
운전 근절 선언 업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발행:

치바현 경찰 본부 교통부 교통 총무과

주소: 치바시 추오구, 나가스 1-9-1, 260-8668 전화번호: 043-201-
0110(대표전화) URL : <https://www.police.pref.chiba.jp>

협력: 이치하라 교도소

발행일:

2024년 11월

음주 운전

안 돼!

음주 운전의 결과: 다섯 개의 이야기, 다섯 번의 후회

동영상 1
“나의 죄”



아직도 음주
운전을
하시나요?

동영상 2
“용서할 수 없는 실수”



동영상 3
“무책임한 태도의 대가”



동영상 4
“음주 운전의 영향”



동영상 5
“반복적인 음주 운전”



음주 운전:
절대 하지도, 용인하지도, 용납하지도 마세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의 회고록 전문과 모든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치바현 경찰: 유죄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의 회고록



치바현 경찰 웹사이트



치바현 경찰 공식 YouTube



심각하게 취한 상태의 운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엔 이하의 벌금

“심각하게 취한 상태의 운전”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운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엔 이하의
벌금



차량 운전자:

심각하게 취한 상태의 운전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엔 이하의 벌금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운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엔 이하의 벌금

주류 제공자 및 동승자

심각하게 취한 상태의 운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엔 이하의 벌금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운전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엔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엔 이하의
벌금

*상기 모든 항목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치바현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조례 개요

목적

이 조례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현과 주민, 사업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대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음주 운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으로써 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례 핵심 사항

현민의 책임

현민이 준수해야 할 사항

-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운전해야 하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를 삼갑니다.



-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 가정, 직장, 커뮤니티 및 기타 환경에서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중앙 정부, 도도부현, 지방 자치제에서 실시하는 대책에 협조합니다.
-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관에게 신고합니다.